

게시일 2005-01-18

제목 「한·EFTA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시」

첨부  한-EFTA FTA 관련 첨부자료.hwp (33K) [파일다운](#)

내용

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1, 7)

발표일시 : 2005.1.17

제목 : 「한·EFTA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시」

1. 한·EFTA 양측은 2005. 1. 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39명이 참석

○ EFTA측에서는 스위스 경제부 Christian Etter EFTA국장을 수석대표로 EFTA사무국, 4개 회원국 등에서 40여명이 참석

※ 1960년에 출범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2. 양측은 작년 12. 16일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2005년초 양측간 FTA 협상을 개시를 선언하고, 2005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협상진행에 합의한 바 있다.

3. 한·EFTA FTA협상은 양측간 교역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 금번 협상은 전체회의와 함께 상품무역, 통관절차 및 원산지, 서비스 및 투자 등 분과별 협의를 통해 협정문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며, 그밖에 이슈별 주요 쟁점과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5. 한편, 작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EFTA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양측의 GDP 및 교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정부도 EFTA가 선진국들의 연합이고 우리와는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 뿐만 아니라 크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없다는 점에서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첨 부 : 1. 한·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2. 한·EFTA 경제 현황 및 EFTA의 FTA 추진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담당부서 : 통상기획홍보팀 2100-7753 tradepr@mofat.go.kr

달기

프린트

한·EFTA FTA 논의 경위 및 공동연구결과 요지

1. 논의 경위

- 2004.5월 OECD 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는데 합의
 - * Korea-EFTA FTA Joint Study Group 구성
 - 목적 : 한·EFTA FTA 타당성 검토 및 범위 등을 논의
 - 구성 : 정부, 산업계, 학계 대표 및 EFTA 사무국
- 2004.8.11~13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
 - 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 2004.10.13~15간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2차회의 개최
 - 1년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초 협상을 개시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연구보고서 확정
- 2004.12.1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
- 2005.1.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 제1차협상 개최 예정

2. 공동연구결과 요지

□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공산품 및 농업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전철폐 가정시 한·EFTA FTA는 양측간 교역규모를 단기적으로 13.8억불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한국의 GDP는 0.02(단기)~0.05%(장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량화하기 어려운 서비스 및 투자와 무역원활화를 통한 이익을 감안하면 경제적 이익은 양측 모두에게 훨씬 클 것으로 예측
- 양측간 산업구조가 보완적이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포괄적인 FTA를 통해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

□ 분야별 기본 협상방향

- 공산품은 FTA 협상발효 즉시 관세철폐(일부 민감품목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한국의 경우 품목별 민감성과 관세율차를 고려하여 결정
- 농산물 및 수산물은 상호 민감성을 감안한 협상 권고
- 서비스·투자 분야는 광범위한 FTA 협상추진으로 상호이익 증대
-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정부조달 협상추진 등에서 한·EFTA간 협력 필요성 공동인식

□ 권고 및 결론

- 전문가 그룹은 한·EFTA FTA가 양측에 win-win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협상의 원칙
 - 포괄성 :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에 포함
 -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
 - 상호이익의 증진
- 한·EFTA FTA는 한국의 대유럽 및 EFTA의 대동북아시아 경제적 유대를 각각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한국과 EFTA 양측이 2005년말까지 협정체결을 목표로 2005년초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

한·EFTA 경제현황 및 EFTA의 FTA 추진현황

1. 한·EFTA 경제현황

- 한국의 EFTA에 수출은 1,312백만불, 수입 576백만불로서 약 19억불 상당의 교역대상국(2002년기준)
 - 주요 수출품목 : 선박과 수상구조물,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류
 - 주요 수입품목 : 기계류, 전기기기, 의약품, 정밀기계
 - * 전체적인 교역품목을 보면 경쟁적 품목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품목이 다수
- 양측간 투자관계
 - EFTA의 1968~2003. 6월간 對韓 투자 : 417건, 1,144백만불
 - 한국의 1968~2004. 4월간 對EFTA 투자 : 18건, 52백만불
 - * 한·EFTA FTA 체결을 통해 스위스를 중심으로 금융·보험분야의 국내 투자유치 증가와 북유럽 IT산업간 제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2. EFTA의 FTA 추진현황

- EFTA는 2004년말 현재, EU 회원국을 비롯하여 유럽, 지중해,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걸쳐 42개국과 FTA를 체결·발효중
- EFTA는 세계시장에서 EU기업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FTA 정책을 적극 추진
- EFTA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하고, 지역주의 움직임이 있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에 적극적
 - * 싱가포르와는 2002. 6월에 FTA 체결후, 2003. 1월부터 발효